

함글함글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신 6:5~7, 엡 6:4, 삿 2:10
2021년 주님의교회 표어



443
2021.11.14.

오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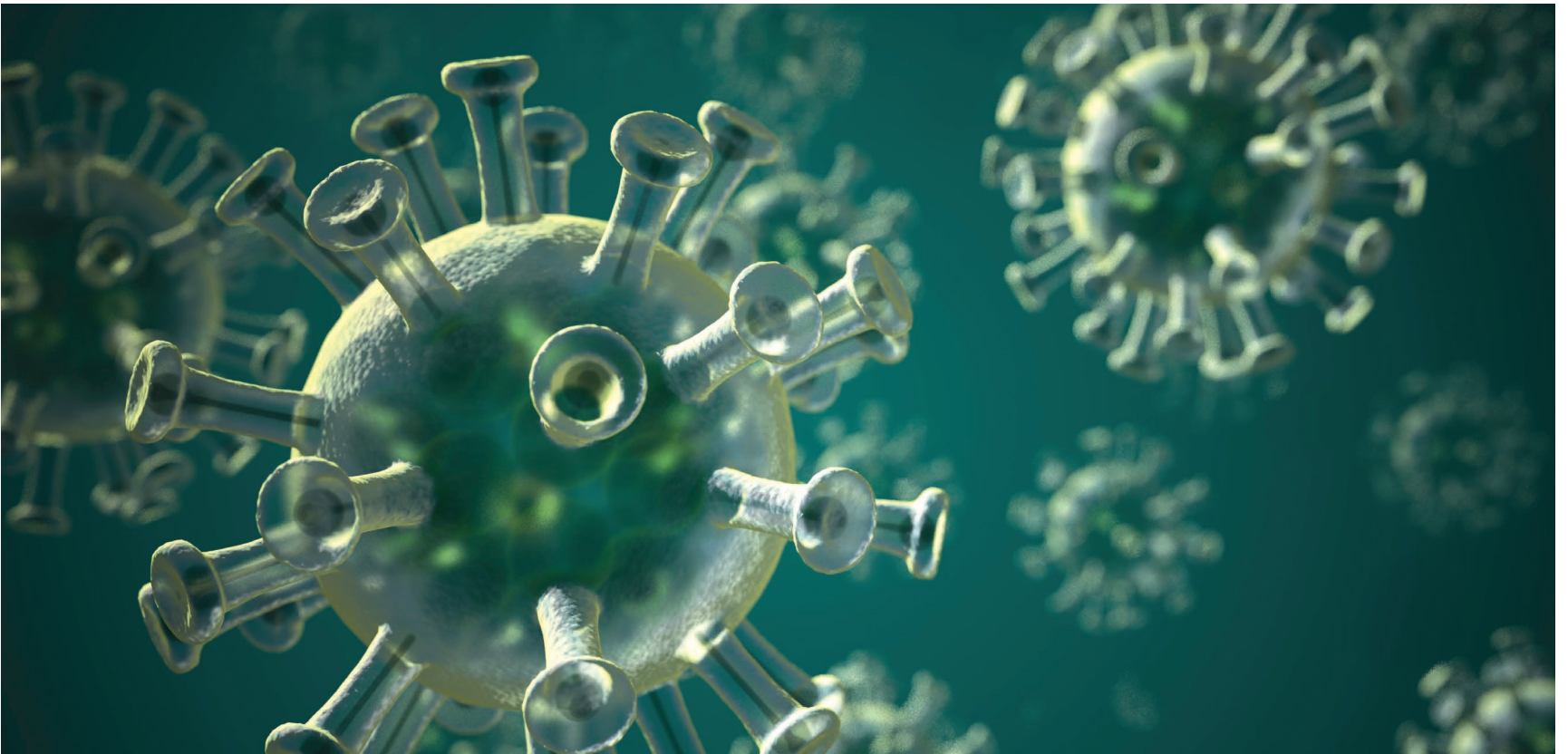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_ 시편 100:4

오늘의 주요기사

2 신년 특집
3 교회 소식

4 섬김과 나눔 소식
5 선교 간증

7 목회 칼럼
8 공동체 소식



위드 코로나

눈에도 보이지 않고 다른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킨 이 작고 작은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의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는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탐욕 바이러스, 명예 바이러스, 권력 바이러스 들도 자칫하면 창궐하여 우리의 일상을 조종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함글함글

신년 특집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삶이 가르침이다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버지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한 마음

정말 웬만하지 않고는 야근이 거의 없는 회사에 다닌다. 가끔 저녁식사 자리나 회식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마저도 안 한 지 오래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씩 재택근무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 1~2년 동안 아이들이 아빠를 하루 이상 보지 못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아빠를 하루 이상 보지 못한 날이 생겼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는데 저녁에는 작가의 저자특강이 있는 책 모임에 가느라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에 귀가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했다.

아이들이 아빠를 그 전날 저녁에 보고 하루 이상을 보지 못한거다.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을 넘어 40시간 넘게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빠는 아이들 자는 모습이라도 보았는데 아이들은 자고 있었으니 아빠를 볼 수 없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학교에 다녀와 오후 시간을 보내던 8살 둘째가 어제 하루 아빠를 못봤다며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단다. 막내답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내 무릎 위에도 곧잘 올라와 앉는 아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찾는다. 그런데 아빠 없이 엄마와 형하고만 있는 저녁 시간이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 집에서 가장 부피가 큰 아빠가 없으니 허전한 느낌이 들었나 보다.

나는 하나님을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았다. 허전한 마음이 들려면 그동안 존재감으로 꽉 차 있어야 한다. 돌아보면 있고, 부르면 와야 한다. 그래야 돌아봐도 없고 불러도 오지 않을 때 허전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돌아볼 때 항상 계셨고, 찾고 구할 때면 언제나 찾아오신다.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부르지 않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라도 만나지 않았을 때 허전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더 익숙하다는 것이다. 아이가 아빠에게 다가와 낮에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때론 아무말 없이도 무릎에 앉거나 기대어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께 다가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 기대어 시간을 보내었다면, 보지 못한 시간이 고작 하루인데도 허전한 마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더욱 반가울 것이다.

하루를 보지 못해 허전한 그런 느낌이라는 아이의 말에 매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 어쩌다 만나지 못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아쉬워하며, 하루라도 보지 못해 허전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책 속의 명문장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요셉 지음, 두란노, 2006

● 요즘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교육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수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 아이의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아이한테 어떤 특기 교육을 시키기 전에 아이를 가만히 눈여겨보라.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격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생각해 보라. ●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천군천사를 대동하거나 특별한 시스템을 이 땅에 구축하지 않으셨다. 다만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가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매력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권위 있는 삶이었다. 누구에게든지 초청장을 내밀 수 있는 자신 있는 삶이었다. 삶은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다. ●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의 정수이다. ● 내가 보는 관점을 사람 중심의 색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인 것이다. ●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각 과목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교육이 아니다. ● 어쩌면 음악이나 수학이나 과학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 낮아진 내가 비로소 학생을 가르치는 거였다. 성경적 통합은 교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다. ●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교육의 뿌리라는 것을 그는 몸소 알려 주었던 것이다. ● 기도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도록, 삶에서 기도가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이다. ● 기독교적 관점에서 협동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은 협동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알아간다.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자신의 희생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 엄마가 교육을 맡아서 하면 그 집은 아빠를 빼고 엄마와 아이들만 교육의 주체가 되지만, 아빠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교육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하나가 된다. ● 책도 여백이 있어야 만들어지고 읽혀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안식이 뿌리를 잘 내려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내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유를 배워야 한다.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자리가 1차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았다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 아기가 내 몸 안에, 우리 집 안에 들어온 이유는 떠나기 위해서이다.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기도해야 한다. 아이들이 잘 떠나게 해 달라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지 못했기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욕심의 가정이 되고 있다. ● 학부모는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부모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야 한다. 학교도 교회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부모로서 교육의 주권을 회복하는 자세이다... 부모는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드려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교회 소식

‘위드 코로나’ 정책과 대면 예배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접종 완료에 따라 방역 정책을 개편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방침을 시행함에 따라, 교회에서는 그동안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예배 방식을 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중이던 주일 예배와 청년숲은 제한 인원을 확대하며, 청소년숲은 11월 21일부터, 유아숲은 12월 5일부터, 유소년숲은 12월 12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된다.

함줄함울

유아청년 대면예배 전환 일정

숲	부서	시간	기타
유아숲 12월 5일(주일)부터	아기부	주일 오전 11시	
	영아부 1부	주일 오전 9시	
	영아부 2부	주일 오전 11시	
	유아부 1부	주일 오전 9시	
	유아부 2부	주일 오전 11시	실시간 예배영상 동시 송출
	유치부 1부	주일 오전 9시	
	유치부 2부	주일 오전 11시	
유소년숲 12월 12일(주일)부터	유년부 1부	주일 오전 9시	
	유년부 2부	주일 오전 11시	
	초등부 1부	주일 오전 9시	
	초등부 2부	주일 오전 11시	실시간 예배영상 동시 송출
	소년부 1부	주일 오전 9시	
	소년부 2부	주일 오전 11시	
청소년숲	11월 21일(주일)부터	주일 오전 9시	실시간 예배영상 동시 송출
청년숲	현재 대면예배 진행중	주일 오후 2시 30분	실시간 예배영상 동시 송출

교계 소식

한국 어와나 교사 영성 수련회

2021년 10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제15회 한국 어와나 교사 영성수련회가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 영성수련회는 ‘흔들리는 세상, 복음 위에 서라’라는 주제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의 주제 강연과 이종국 대표의 말씀과 기도 등으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갖고, Zoom 실시간 유튜브 연동으로 밥 존스(Bob Jones) 대학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특별히 이번 영성수련회에서는 커비단(5~6세)의 허가화 디렉터와 이유미 교사, 그리고 스팅스(7~9세)의 어진원 디렉터가 10년 봉사 시상을 받아 더욱 뜻깊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5세부터 중3까지 온라인을 통해 말씀 암송과 예배, 그리고 선생님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왔다.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말씀암송과 게임과 교제로 하나 되는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으로 회복되어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를 길러내는 사역이 되길 소망한다.

함줄함울



2021 한국 어와나 교사 영성 수련회 표어



주제 강연을 한 이동원 목사

**유아숲·유소년숲
현장예배 재개안내**

유아숲 12.5(주일) 부터
유소년숲 12.12(주일) 부터
장소 : 각 부서실
(실시간 유튜브 예배 병행)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한 수칙!

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예배드려요!

②

손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③

서로 거리를 두고 예배드려요!

철저한 방역환경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교역자, 교사)만 예배를 삼가게 됩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유아숲 - 유아부 오전 11:00 예배 / 유소년숲 - 초등부 오전 11:00 예배)

유아숲, 유소년숲 현장예배 재개안내

뭐?! 대면 예배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만나만나
진짜만나**

VIP업이나 문자로 받은 링크!
네이버 포스트로 신청해!!!!

추수감사주일(11/21)에 시작이라구!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친구들아 만나자!!

청소년숲 현장예배 재개안내



10년 봉사상을 받은 허가화 디렉터, 이유미 교사, 어진원 디렉터

섬김과 나눔 소식

2021 생명사랑 이웃사랑 실천이야기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사)섬김과나눔에서는 우리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손길을 전해드리고자 하반기 2021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실천 이웃돕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함께한 12개의 복지기관 중 혹한기 겨울철 대비, 주거취약계층 15명을 선정하여 따스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의 실천현장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사)섬김과나눔 재단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 함께 만나 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약정서를 교환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장애당사자 중 겨울철 대비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장애아동과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 경제사정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끝에, 최종 1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후에는 '난방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건지 사회복지사와 함께 1:1로 계획을 세워보고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계획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도 써보았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높은 만족도는 물론이고, 자기선택과 결정이라는 참여과정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에 '난방지원금'을 매개체 삼아 외부 인적망인 사회복지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쌓고, 사례관리에 참여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천에 따라 이웃분들도 섬김과 나눔재단에 따스한 말과 마음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나한테 딱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철 옷이 필요했는데 평소엔 비싸서 살 엄두도 못 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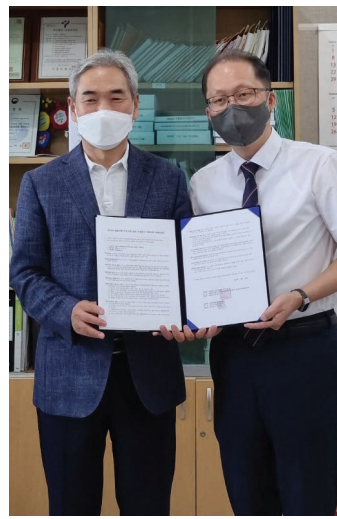
“저희뿐만 아니라 지원해주신 분들도 따듯한 겨울을 보내면 좋겠어요.”

이웃들이 보내주신 인사에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과 (사)섬김과나눔에서도 좀 더 따듯해진 2021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실천 이웃돕기'를 통해 몸과 마음까지 너무나도 따듯해지는 11월입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이웃분들, 송파구 내 복지관, (사)섬김과나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지역사회 복지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합니다.

섬김과나눔

공활현금
감사편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직접자병원은 2020년 9월1일 날짜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국가로부터 2차 지정이 되었습니다. 외래 진료와 검사, 당일 가능한 수술, 신장실을 제외한 모든 치료가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원목실에서는 이런 병원 선교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코로나 환자들의 정서적인 상담과 영적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가족 감염으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 부부가 감염되었는데 입원은 같이 했지만 한 사람만 먼저 퇴원하게 되어 낙심해 하는 분들 등 여러 양상의 환자들을 돌보며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평균 하루 30명)

감염을 염려하는 의료진들과 직원들,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으로 치료받는 환우들에게 원목실은 직원들의 복음화와 코로나 환우들이 예수님 영접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주일은 예배와 상담 대신 병실 기도사역 감당)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와 심령의 평안함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병원선교의 또 다른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서울직접자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1차로 지정되었던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이상 예배가 중단되어 모든 헌금의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원목실

의 존폐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이 담긴 선교헌금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으로 1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면역을 기르는 것이고, 그 면역이 영구적이라는 확신이 아직은 없기에 지속적으로 감염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예수 백신'이 있습니다. '예수 백신'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 육체의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기에 서울직접자병원 원목실은 '예수 백신'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의 준비가 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으로 이끄시는 참종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만지심과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목사 / 서울직접자병원 원목실 원목 실장

선교 간증

돈보기안경

내가 지구를 반 바퀴 돌아서 한국에 와서 선교라고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십오 년이 넘었으니 빠른 것은 세월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지구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같이 못난 인간을 우리 주님은 불러 주었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외국을 자주 드나들었을까? 외국에 나갈 때는 홀트 아동복지의 도움으로 여행용 가방을 대신해, 내 가슴에는 미지의 세계 양부모를 찾아가는 미혼모들의 부산물들이다. 나 또한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자라왔고, 내 가슴으로 안은 어린 생명 또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고아들이다.

누구의 죄인 줄 알 길이 없는 어린 생명을 안고, 비행기를 오를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이다. 울어대는 아기의 모습에 모든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귀찮아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비행기 복도를 걸어 다니며 ‘아가야! 울지 마! 세상 사람들은 너의 슬픈 울음 소리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속삭여 준다. 목적지까지 가서 어느 사이 정이 들었던 어린아이들을 양부모 품에 안겨주고는 기도를 하고 선교 사역에 뛰어든다. 뉴욕 맨해튼, LA 뒷골목, 도쿄 신주쿠 번화가에서 술이 취해 자기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여성들이 나의 전도의 대상들이었다.

그분들은 답답할 때는 나를 찾아오지만, 형편이 나아지고 자리가 잡히고 나면,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나를 멀리들 했다. 선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꼭 대우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육신 하나 밖에 없기에, 육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매달 청주여자교도소에 가지만, 그 때 그 할머니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선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자 재소자들이 육백 명 정도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은 무기를 받은 백발의 할머니이었다. 재소자 중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영자 씨도 있었다. 나는 집회를 마치고 백발의 할머니와 상담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할머니에게 “형기를 마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까?”물으니,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면서 모른다고 하셨다. 가는 세월을 손으로 꼽다 보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할머니, 누가 면회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하자 전에는 자식들과 형제들이 얼굴을 비추더니 이제는 소식이 끊어진지 오래라고 하였다.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 번뿐인 인생을 철창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느새 할머니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살아생전에 이 교도소를 나갈 수 있을까요?”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한숨을 내리쉬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할머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까?”물으니,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한숨을 크게 쉬고 감옥에 갇혀 생활하는 늙은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다만 너무 속이 상하고 누구한테라도 속 시원히 말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이라며 말을 시작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홀아비 늙은이에게 시집을 갔다. 어느 날 들에서 밭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린 두 딸에게 과자를 사주고는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연장으로 내리친 것이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그 말을 해놓고 흐느껴 우셨다. “할머니 그 후로 어린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할머니가 붙들려온 뒤로 친척들이 몇 번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소식조차 없다고 했다. 세상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형제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온통 갈라지는 것뿐이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라도 갈라지지 말자 했다.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대답했다. 나는 내가 쓴 책 한 권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라며 전도를 하였다.

교도소 감방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있지만 눈이 나빠서 보지를 못했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무수한 목자들이 교도소를 다녀갔어도 정작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만져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선교사인 나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다음에 올 때는 꼭 돈보기안경을 할머니에게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돈보기안경을 할머니께 보내 드리고, 머나먼 해외선교를 떠났다. 나의 전도 대상자는 마약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술을 따르고 밤을 낮으로 사는 불쌍한 여성들,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란 이름으로 눈물짓고 살아가는 영혼들이다. 이 세상에는 슬픈 사연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모두들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것이다.

구름처럼 해외선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할머니 소식부터 궁금해졌다. 곧바로 청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청주교도소로 향했다. 굳게 닫힌 철문 안으로 들어가 소나님을 찾았다. 소장님을 나를 보더니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며 안타까워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소장님은 서랍 속에서 돈보기안경을 꺼내면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돈보기안경을 가슴에 안고 죽으셨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으면 돈보기안경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까? 나는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주님께서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 믿으며 ‘잘 가셨어요!’라고 할머니에게 전했다. 할머니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잘 가신 것이다. 한 줌의 흙이 되어 하늘을 나는 파랑새처럼 훨훨 날아가신 것이다. 나도 예수님이 부르면 할머니 곁으로 갈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반평생을 살았던 곳의 무거운 철문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다. 저 무거운 벽돌담 안에는 오늘도 돈보기안경이 필요해 눈물짓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무거운 선교의 가방을 들고 발길을 옮겼다.

이드보라 권사



수련회 소감

음악위원회 온라인 연합수련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음악위원회 온라인 연합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신 채정호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시 사는 삶, 다시 찾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연이었지만 강연 내용이 너무 알차고 강연 후 질문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오프라인 강연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반가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는 찬양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찬양 대원의 삶과 그때 누리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웰빙(Well-Being)이라고 정의하시며 지금도 말만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세월호 사건을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있기 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공부 때문에, 귀 뚫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꾸중을 하였지만 지금은 오직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와 엄마로, 아들과 딸 또는 손자로 그리고 찬양 대원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줌으로 진행된 이 강의에 음악위원회 소속된 분들 중 100여 분 넘게 참여하셨는데 그중에는 줌을 이용한 이런 온라인 강의가 친숙하지 않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처럼 세상은 갈수록 나이 든 사람에게 불친절해지는데 이런 환경을 불평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 참여해 주신 그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받으며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수상소감을 통해 제안한 것처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환경에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함으로 지경을 넓혀 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음악위원회 담당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강연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른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염인호** 안수집사 / 4교구

교우 시편

홀로서기

하루 세끼 먹는 밥
두 끼로 줄이니 견딜만 합니다.
늦은 아침식사 한 끼를
브런치가 있어
나에게는 안성맞춤이지요.
딸이 가끔 밑반찬을 준비하여
냉장고에 채워주지요
새로운 반찬이 생각나면
반찬가게를 이용하지요.
내가 버는 교육평가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장미

일원동 마루공원
철제웁스에
10월이 다가도록
장미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가시로
가슴앓이를 하며
빨갭게 타고 있구나.



위드 코로나19

코로나19가 우리를 노리는 세상에서
이별이 잦은 우리 인생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기로 합시다.
전도서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으니 인생을 즐겁게 살기로 합시다.
헛되지 않은 것은 기도뿐!
기도를 통하여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 이는
오직 주님뿐임을 굳게 믿고 기도합시다.



목회 칼럼

행복한 왕자

진짜 아름다움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느라 손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 필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우뚝 서서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주님을 돕는 제비 같은 이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왕자의 눈물

요즘과 같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 찾아와 찬 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읽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복한 왕자 동상은 어느 도시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기둥 꼭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왕자의 온몸은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두 눈은 영롱한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 차고 있는 칼자루는 루비로 장식되어 온 도시의 사람들은 그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동상을 우러러보며 그 아름다움을 칭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제비 한 마리가 우연히 행복한 왕자의 발아래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잠을 청하던 제비는 자신에게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처음에는 빗방울인 줄 알았다가 결국 그것이 행복한 왕자의 눈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울고 있던 왕자와 대화를 통해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걸로 볼 때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높고 웅장한 왕궁 속에서 각양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자란 왕자는 죽음 이후 높은 동상에 오르고 나서야 온 도시에서 자행된 온갖 추하고 비참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두 가지

누구든 자신의 처지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물러나 보아 그 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 봅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심취해 있다 보면 가려진 현실 속에서 자기도 알고, 또 그 대상의 바른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듯합니다.

행복한 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 자신의 곁에 머문 제비를 보내어 도시 곳곳에서 힘겨운 삶

을 살아가는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제비는 왕자의 온몸에 두르고 있던 보석들을 하나하나 전하며 아무도 몰래 생명의 온기를 전합니다. 왕자의 수족이 되어 일하던 제비는 결국 남국으로 내려갈 때를 놓쳐 왕자의 발 앞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점차 흉물스러워진 동상 역시도 끌어내려져 용광로에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를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천사는 용광로 속에서도 타지 않은 왕자의 심장 과 죽은 제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으로 이 동화는 마무리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름다움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처음에 두 눈이 가려진 행복한 왕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던 행복한 왕자는 진정으로 행복할 줄 몰랐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추구하고 싶었던 자신의 아름다움(Beauty)을 포기하고 내려 놓음으로 진정한 아름다움(Inner-Beauty)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느라 손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 필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우뚝 서서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주님을 돕는 제비 같은 이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 썼던 동화 '행복한 왕자'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제 점점 날이 더 쌀쌀해져 갈 텐데, 우리 곁에 맡기신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 살아가는 불행한 왕자가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나누고 함께 함으로 물질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을 닮은 도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주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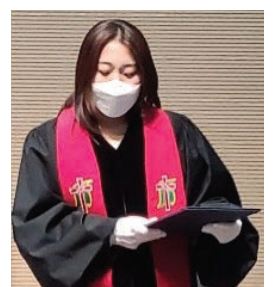
감사 인사

주의 은혜로 받은 목사안수, 감사합니다

샬롬, 지난 10월 19일에 목사안수를 받은 김은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주의 손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곁에 사랑하는 교회와 빛나는 성도들과 든든한 가족이 늘 자리하고 있었고,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모든 여정도, 모든 사역의 자리도 주

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맡기신 것이 있으니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선한 길로 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받은 목사안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알립니다

함즐함울 신춘문에 공모

함즐함울에서 제2회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개인 미디어 시대, 모든 생활과 소통은 영상과 같은 감각적 미디어와 카톡 식의 일회성 텍스트에 담겨 질 뿐, 단어 하나의 선택에도 땀을 흘리고, 심포 하나를 찍는 데에도 고민하던 깊이 있는 문학의 공간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청년들의 산실이었던 문예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표현의 언어를 정갈하게 버르는 일일 것입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쳐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

- 시 : 3편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 간증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접수 마감

- 2021년 12월 15일 24:00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2년 함즐함울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

보낼 곳

- hamletter@daum.net · 메일 제목에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보출판부

교회일정

11/21(주일)	추수감사주일
11/28(주일)	대림절1, 임직식
11/24(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2학기 종강

알립니다

1. 수능일 연합 기도회

연합 : 주님의교회, 하늘비전교회

일시 : 11/18(목) 오전8:30부터

장소 : 하늘비전교회

진행 : 현장모임과 유튜브 실시간 병행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하늘비전교회 채널)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함즐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이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즐함울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